

##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분석

박문수<sup>1</sup>, 정호근<sup>2</sup>, 김화년<sup>3\*</sup>, 고대영<sup>1</sup>

<sup>1</sup>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 <sup>2</sup>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sup>3</sup>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 An Analysis of Single-person Households' Expenditure Pattern

Moon-Soo Park<sup>1</sup>, Hogun Chong<sup>2</sup>, Hwa-Nyeon Kim<sup>3\*</sup> and Dae-Young Koh<sup>1</sup>

<sup>1</sup>Division of Service Industry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sup>2</sup>Department of Forest Policy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up>3</sup>Department of Global Studies,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에서는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1인가구의 소비패턴이 연령별, 소득별로 얼마나 다른지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음식료품,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 지출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1인가구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다른 소비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인가구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은 연령별, 소득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향후 1인가구의 관련 정책 또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연령별, 소득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은 1인가구 중 고소득 미혼자 그룹 등 구매력이 큰 소비자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필수재 구매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 기사지원 등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ingle-person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are different with respect to age and income groups using Tobit model. The expenditure data of the national household survey from 2006 to 2012 we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income elasticities of all items are greater than 1 except for food & beverage, housing, water, electricity & gas, and Communication. Income elasticiti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onsuming items. Additionally the income elasticities are also different between various age and income groups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fore governments and businesses have to take this into account when devising their policies or strategies regarding single-person households. Especially, businesses need to adopt a strategy targeted at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high income and buying power such as unmarried professional people. As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 increases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on necessities such as beverage, food, and energy is expected to decrease while that on services increases. Consequently policy responses are required to prepare for the expansion of service industries such as health, hospital, and housekeeping services.

**Key Words** : Consumer Expenditure, Income Elasticity, Single-person Household, Tobit Model

### 1. 서론

한국의 1인가구 증가는 고령화와 함께 주목해야할 인구구조 변화이다. 한국의 1인가구 비중은 1990년 9.0%이었으나 2010년 23.9%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1.3%로

####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Corresponding Author : Hwa-Nyeon Kim(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el: +82-2-3780-8254 email: hwanyeon.kim@samsung.com

Received January 13, 2015 Revised (1st February 3, 2015, 2nd February 6, 2015, 3rd February 11, 2015) Accepted February 12, 2015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4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29.5%에서 2010년 22.5%로 작아졌으며, 2025년에는 13.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이는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더 이상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가구는 연령과 특성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2]. 첫째 고용이 불안정하여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2~30대 산업예비군 그룹, 둘째 전문직에 종사하며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는 3~40대 골드 미스·미스터 그룹, 셋째 이혼 등으로 인한 4~50대 독신자 그룹, 넷째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독거노인으로 지내는 60대 이상의 실버세대 그룹이다.

1인가구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1인가구는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독립적인 개인공간과 부엌이나 거실을 공유하는 코하우징(co-housing)과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가 등장했다. 식품시장에서도 소포장, 소용량 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으며, 가구와 가전제품이 소형화되고 렌탈 서비스 시장이 커졌다. 소비주체로서 1인가구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용어가 등장했다[3].

이렇듯 1인가구의 증가는 산업별·품목별 소비행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급 측면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업별 소비행태의 차이 등 수요측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패턴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식료품, 가구 등 실물 제품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오락 등 서비스 수요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 1.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1인가구에 관한 연구들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 규모를 비교한 연구들과 1인가구의 소비지출 행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4- 8].

Lancaster[4]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개인당 소비하는 재화의 양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는 소비 변화 중의 하나가 주택 수요에 대한 변화이다. Wulff, Heal, Reynolds[5]는 오스트리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개인당 더 큰 주거 공간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연구[9-10]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가계의 소비 품목 변화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Hashimoto[6]의 일본 1인 가구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별, 직업유무, 수입, 거주형태에 따라 나누고 각각 10개의 소비 품목에 대한 탄력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안에서도 다양한 인구 구조적 특성에 따라 소비 품목별 탄력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Park and Choi[7]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혼독신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 규모는 기혼보다 훨씬 많았으며 소비 품목별 구성비에서 개인주의적 소비성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30~40대 독신 가구를 대상으로 한 Shim[8]의 연구에서도 독신가구의 소비지출은 다른 소비지출 품목들과 비교하여 외식비, 문화·오락비 지출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서비스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Hwang[11]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생산활동이 시장화(Marketization of Household Production)되어 가사 서비스, 의료, 교육훈련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외 연구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증가가 서비스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서비스를 포함한 소비 품목을 크게 12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1인가구의 품목별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한 1인가구의 연령과 가구 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1인가구의 특성별 소비행태를 분석했다.

## 2. 분석자료 및 모형

### 2.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인가구의 지출 자료를 추출해 분석에 이용하였다[Table 1]. 전체 기간(2006~2012년)동안 1인 가구의 품목별 소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에 대한 비중이 22.78%로 가장 컸다. 서비스 중에서는 음식·숙

[Table 1] Percentage Share of Single-person Households' Expenditures

Classification		2006 (%)	2009 (%)	2012 (%)	All Period (%)
Non-Service	Food & Soft Drinks	21.81	23.96	23.59	22.78
	Alcoholic Beverage & Cigarette	2.11	1.65	1.53	1.73
	Clothing & Foot Wear	5.23	5.16	5.59	5.33
	Housing, Water, Electricity & Gas	13.35	14.93	15.83	14.45
	Household Equipment	3.41	3.71	4.11	3.84
Service	Health	10.18	10.8	11.63	11.01
	Transportation	9.88	9.3	8.42	9.33
	Communication	7.34	6.13	4.92	6.22
	Entertainment & Culture	4.3	4.99	5	4.71
	Education	1.28	1.03	0.72	1.07
	Restaurants & Hotels	13.82	10.36	10.4	11.87
	Other Miscellaneous	7.28	7.96	8.28	7.67

Source: Statistics Korea[1]

박에 대한 지출비중이 11.87%로 컸다. 주류 및 담배, 가정·가사 용품,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은 6%대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지출 중 주거 및 수도광열이 1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교육은 가장 낮은 지출비중(1.1%)을 차지했다.

연도별 차이를 보면 비서비스 품목 중에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가사 용품의 지출비중이 증가했다. 서비스 품목 중에선 보건, 오락·문화, 기타상품 및 서비스의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주류 및 담배, 서비스 품목 중에선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의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2.2 분석모형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Kim and Choi[12], Kim et al.[13]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식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현재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12], [13]의 연구와 같이 항상소득에 대한 대리변수로 총 소비지출을 이용했다.

$$\ln Cons_{i,j,t} = \beta_{0j} + \beta_{1j} Fe_{i,t} + \beta_{2j} Unemp_{i,t} + \beta_{3j} Selfemp_{i,t} + \beta_{4j} Edu_{mid_{i,t}} + \beta_{5j} Edu_{high_{i,t}} + \beta_{6j} Edu_{univ_{i,t}} + \beta_{7j} House_{i,t} + \beta_{8j} Age_{4059_{i,t}} + \beta_{9j} Age_{60_{i,t}} + \sum_{k=2007}^{2011} w_{k,j} DYear_{i,t}^k + (\alpha_{0j} + \alpha_{1j} Age_{4059_{i,t}} + \alpha_{2j} Age_{60_{i,t}} + \sum_{k=2007}^{2011} \tau_{k,j} DYear_{i,t}^k + \sum_{l=2}^5 \gamma_{l,j} DInc_{i,t}^l) * \ln TExp_{i,j,t} + \epsilon_{i,j,t}$$

$$Cons_{i,j,t} = \begin{cases} 0 & \text{if } Cons_{i,j,t} \leq 0 \\ Cons_{i,j,t} & \text{if } Cons_{i,j,t} > 0 \end{cases} \quad (1)$$

단,  $i=1$ 인가구 응답자,  $j=12$ 개 품목,  $t=2006 \sim 2012$ 년.

소득 변수에 가구주 연령, 소득분위, 연도 더미변수들을 교차시킨 교차항을 포함해 1인가구의 특성별 소득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연령그룹별, 소득수준별 소득탄력성 차이와 변화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1인가구에 대한 12개 품목별 서비스와 비서비스 수요를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1인가구 데이터에서는 각 품목 중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아 지출액이 0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는 경우 편이가 있는 (Biased) 추정결과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별로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산선택 모형 중 하나인 토빗(Tobit) 모형을 사용했다.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및 기본통계량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구주 연령 더미 변수는 40세미만 기준, 4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가구주 소득(총지출) 분위 더미의 경우 1분위(20%미만), 2분위(20-40%), 3분위(40-60%), 4분위(60-80%), 5분위(80-100%)로 구분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1인 가구의 소비 특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6~2012년의 연도 더미를 포함했다.

[Table 2] Description and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Descriptions	Average	Std
Expenditure	Non-Service Items			
	$Cons_{i,1,t}$	Food & Soft Drinks Consumption	147,261.6	98,543.9
	$Cons_{i,2,t}$	Alcoholic Beverage & Cigarette Consumption	12,447.5	25,126.0
	$Cons_{i,3,t}$	Clothing & Foot Wear Consumption	52,921.0	90,737.2
	$Cons_{i,4,t}$	Housing, Water, Electricity & Gas Consumption	99,822.1	172,440.8
	$Cons_{i,5,t}$	Household Equipment Consumption	37,203.1	108,853.3
	Service Items			
	$Cons_{i,6,t}$	Health Consumption	82,540.3	162,281.9
	$Cons_{i,7,t}$	Transportation Consumption	107,341.3	431,358.2
	$Cons_{i,8,t}$	Communication Consumption	45,584.6	44,007.6
	$Cons_{i,9,t}$	Entertainment & Culture Consumption	42,445.4	92,929.5
	$Cons_{i,10,t}$	Education Consumption	15,462.2	96,556.7
	$Cons_{i,11,t}$	Restaurants & Hotels Consumption	105,600.6	135,474.7
$Cons_{i,12,t}$	Other Miscellaneous	81,829.8	209,788.9	
Interaction Terms	$Age_{4059} * \ln TExp_{i,t}$	Dummy(Age 40~60) * (Logged Total Income)	3.78	6.12
	$Age_{ov60} * \ln TExp_{i,t}$	Dummy(Age over 60) * (Logged Total Income)	7.21	6.50
	$D_{i,t}^{2007} * \ln TExp_{i,t}$	Dummy(Year 2007) * (Logged Total Income)	2.01	4.77
	$D_{i,t}^{2008} * \ln TExp_{i,t}$	Dummy(Year 2008) * (Logged Total Income)	1.97	4.74
	$D_{i,t}^{2009} * \ln TExp_{i,t}$	Dummy(Year 2009) * (Logged Total Income)	1.75	4.50
	$D_{i,t}^{2010} * \ln TExp_{i,t}$	Dummy(Year 2010) * (Logged Total Income)	1.62	4.37
	$D_{i,t}^{2011} * \ln TExp_{i,t}$	Dummy(Year 2011) * (Logged Total Income)	1.89	4.67
	$D_{i,t}^{2012} * \ln TExp_{i,t}$	Dummy(Year 2012) * (Logged Total Income)	1.92	4.72
	$DInc_{i,t}^2 * \ln TExp_{i,t}$	Dummy(Income 2nd quintile) * (Logged Total Income)	2.59	5.18
	$DInc_{i,t}^3 * \ln TExp_{i,t}$	Dummy(Income 3rd quintile) * (Logged Total Income)	2.66	5.33
	$DInc_{i,t}^4 * \ln TExp_{i,t}$	Dummy(Income 4th quintile) * (Logged Total Income)	2.74	5.48
	$DInc_{i,t}^5 * \ln TExp_{i,t}$	Dummy(Income 5th quintile) * (Logged Total Income)	2.87	5.74

Source: Statistics Korea[1]

### 3. 추정결과

#### 3.1 모형추정 결과

토빗 모형을 이용한 1인 가구 소비함수 추정결과와 품목별 로그우도값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모든 품목에 대해 전기간 모든 그룹의 평균적인 소득 탄력성을 나타내는 총지출액 자연로그값( $\ln TExp$ )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가져 정상재(normal good)의 특징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처럼 1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한 지출은 증가한다.

가구주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 1인가구주일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가사 용품, 보건, 교육,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컸으며 계수도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통신, 오락·문화는 성별이 지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과 관련하여, 피고용된 1인 가구에 비해 무직인 가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보건에 대한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교통, 통신,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피고용된 1인가구주에 비해 자영업자인 1인가구주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에 대한 지출만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의류 및 신발, 교통,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Table 3] Tobit Estimation Results

Variables	Non Service					Service						
	Food & Soft Drinks	Alcoholic Beverage & Cigarette	Clothing & Foot Wear	Housing, Water, Electricity & Gas	Household Equipment	Health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Entertainment & Culture	Education	Restaurants & Hotels	Other Miscellaneous Service
$\ln TE_{Exp}$	0.624***	1.242***	1.320***	0.919***	2.153***	1.972***	1.557***	0.642***	1.348***	1.009**	0.959***	1.601***
$Age\_4059 * \ln TE_{Exp}$	0.006	-0.175	0.270	0.024	0.027	-0.759***	0.042	0.027	0.088	0.800***	0.206*	0.127
$Age\_ov60 * \ln TE_{Exp}$	0.140***	-0.219	0.519***	0.173**	0.175	-0.687***	-0.262**	0.318***	0.003	-0.521*	0.357***	0.308***
$D_{i,t}^{2007} * \ln TE_{Exp}$	-0.050	-0.075	-0.126	-0.026	-0.231	-0.050	0.049	-0.089	-0.105	0.037	-0.121	-0.154*
$D_{i,t}^{2008} * \ln TE_{Exp}$	0.030	-0.115	-0.013	0.007	0.018	-0.183	-0.172	-0.209*	0.029	-0.125	-0.377***	-0.285***
$D_{i,t}^{2009} * \ln TE_{Exp}$	0.057	0.442*	0.809***	-0.074	-0.160	-0.153	0.115	0.311***	-0.037	2.537***	0.638***	-0.226***
$D_{i,t}^{2010} * \ln TE_{Exp}$	0.072**	0.588**	0.841***	0.129*	-0.137	-0.064	0.239**	0.545***	0.078	2.536***	0.690***	-0.179**
$D_{i,t}^{2011} * \ln TE_{Exp}$	0.198***	0.857***	0.887***	0.058	0.008	-0.201	0.073	0.818***	0.183**	2.331***	0.725***	-0.189**
$D_{i,t}^{2012} * \ln TE_{Exp}$	0.060*	0.341	0.905***	0.181**	-0.165	-0.190	0.142	0.852***	0.142*	2.497***	0.409***	-0.272***
$DInc_{i,t}^2 * \ln TE_{Exp}$	0.005**	0.060***	0.052***	-0.003	0.021**	0.020**	0.014**	0.000	-0.020***	0.078***	0.036***	-0.015***
$DInc_{i,t}^3 * \ln TE_{Exp}$	0.002	0.075***	0.056***	-0.009*	0.006	0.027**	0.011	-0.006	-0.035***	0.103***	0.045***	-0.024***
$DInc_{i,t}^4 * \ln TE_{Exp}$	-0.003	0.083***	0.044***	-0.020***	-0.003	0.036**	0.004	-0.011	-0.045***	0.091***	0.031***	-0.027***
$DInc_{i,t}^5 * \ln TE_{Exp}$	-0.014***	0.055*	0.012	-0.033***	-0.029	0.051***	-0.019	-0.029**	-0.062***	0.127***	-0.009	-0.039***
$Fe$	0.424***	-2.573***	1.290***	0.081**	1.009***	1.120***	-0.411***	-0.040	0.005	1.515***	-0.705***	0.642***
$Unemp$	0.136***	-0.391***	-0.531***	0.026	0.135*	0.257***	-0.570***	-0.312***	-0.021	-0.192	-0.790***	-0.298***
$Selfemp$	0.082***	0.008	-0.225**	-0.034	-0.087	-0.085	-0.113*	0.069	-0.032	-0.346*	-0.339***	-0.009
$House$	0.027	-0.292	0.111	0.881***	0.082	0.188	-0.170*	0.238**	0.196***	0.521**	-0.123	0.037
$Edu\_mid$	0.016	-0.212	0.508***	-0.001	0.053	-0.227**	0.346***	0.256***	0.102**	0.447**	0.223***	0.178***
$Edu\_high$	-0.020	-0.481***	0.305***	0.123***	-0.144	-0.427***	0.322***	0.495***	0.215***	1.076***	0.294***	0.293***
$Edu\_univ$	-0.070***	-1.364***	0.561***	0.080	-0.201*	-0.434***	0.567***	0.440***	0.483***	2.036***	0.360***	0.191***
$Age\_4059$	0.286	2.110	-3.920*	0.101	0.121	11.268***	-0.446	-0.421	-1.481	-11.07***	-2.983*	-1.640
$Age\_ov60$	-1.316***	2.120	-7.433***	-1.706*	-1.697	11.370***	3.255**	-4.780***	-0.332	6.245	-5.559***	-4.335***
$D_{i,t}^{2007}$	0.641	0.891	1.657	0.255	3.034	0.575	-0.680	1.240	1.434	-0.673	1.699	2.018*
$D_{i,t}^{2008}$	-0.442	1.481	0.082	-0.137	-0.302	2.267	2.174	2.880*	-0.330	1.493	5.091***	3.646***
$D_{i,t}^{2009}$	-0.858*	-7.616**	-11.91***	0.936	1.589	1.077	-1.976	-4.562***	0.527	-44.76***	-9.328***	2.877***
$D_{i,t}^{2010}$	-1.113**	-9.474***	-12.53***	-1.820*	1.428	0.256	-3.855***	-7.900***	-1.134	-45.68***	-10.11***	2.062*
$D_{i,t}^{2011}$	-2.913***	-13.29***	-12.92***	-0.926	-0.476	2.079	-1.559	-11.74***	-2.64**	-42.89***	-10.54***	2.285**
$D_{i,t}^{2012}$	-1.063**	-6.607**	-13.26***	-1.803*	1.919	2.107	-2.633*	-12.15***	-1.801*	-45.75***	-6.306***	3.507***
constant	2.713***	-6.953*	-8.916***	-2.292*	-21.04***	-18.80***	-9.631***	1.968	-7.825***	-9.656*	-0.862	-10.91***
$\sigma$	0.690***	3.788***	2.910***	1.201***	2.557***	2.482***	1.830***	1.979***	1.316***	4.411***	2.051***	1.428***
Log-likelihood	-8525	-2071.9	-1954.3	-13130.5	-1888.4	-1871.5	-1615.0	-1708.4	-1385.8	-1294.7	-1737.6	-1451.1

Note: \* P<10%, \*\* P<5%, \*\*\* P<1%

가구주가 자가주택, 무상주택, 사택 등에 거주하여 거주비용이 안들거나 매우 낮은 경우 통신, 오락·문화, 교육에 대한 지출은 유의하게 높은 반면, 교통에 대한 지출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될수록 대부분의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학력 1인가구일수록 식료품, 주류 및 담배, 가정용품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보건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인가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3.2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

추정결과를 이용해 품목별 소득탄력성 값을 도출하여 1인가구의 품목별, 소득과 연령 그룹별 차이를 분석했다 [Table 4].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 정상재이며, 0~1 사이의 값을 가지면 보통재, 1보다 크면 사치재이다. 사치재 중에서도 1.3보다 크면 선택재로 구분된다.

1인가구 공통적으로 모든 품목들이 0보다 큰 소득탄력성을 가져 정상재이다. 의류 및 신발과 교육의 소득탄력성이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은 1보다 작은 양의 소득탄력성을 가져 필수재이다. 반면, 주류담배, 의류 및 신발, 가정·가사용품,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

스는 1보다 큰 소득탄력성을 가져 사치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문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치재 품목들이 선택재로 분류될 수 있다.

1인가구의 연령에 따라 품목별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1인가구가 고령화될수록 품목별 소득탄력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따르는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통신,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1인가구가 고령화될수록 보건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급격히 감소한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은 고령화될수록 소득탄력성이 증가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1보다 작은 소득탄력성 값을 가져 필수재이다. 반면,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기타상품 및 서비스는 고령화될수록 소득탄력성이 증가하고 모두 1보다 큰 소득탄력성 값을 가져 사치재이다. 보건은 고령화될수록 소득탄력성이 감소하나, 모든 연령대에서 1.3보다 큰 소득탄력성 값을 가져 사치재임과 동시에 선택재이다. 주목할 점으로, 통신과 음식·숙박은 1인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수재에서 사치재로 변한다. 통신은 60세 이상 1인가구에게는 사치재인 반면 60세 미만에선 필수재이다. 이와 같이 품목별 소득탄력성이 연령별로 크게 차이나는 결과는 고령 독신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분위별 5개 그룹간 소득탄력성 차이를 품목별로 분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탄력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류 및 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보건, 통신, 오락·문화,

[Table 4] Income Elasticity Estimation Results

Spec.	Non-Service					Service							
	Food & Soft Drinks	Alcoholic Beverage & Cigarette	Clothing & Foot Wear	Housing, Water, Electricity & Gas	Household Equipment	Health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Entertainment & Culture	Education	Restaurants & Hotels	Other Miscellaneous Service	
all single households	0.6737	1.7135	2.2374	0.8554	1.9694	1.5631	1.3567	0.9983	1.0261	2.4873	1.4680	1.3887	
Age Bracket	less than 40	0.4843	1.3107	1.3639	0.6818	1.7278	2.2782	1.3891	0.6083	1.0522	2.5137	0.8611	1.1757
	40~60	0.5763	1.4186	1.9420	0.7256	1.7988	1.4769	1.4556	0.7002	1.0967	3.4785	1.1436	1.3046
	Over60	0.7490	1.9250	2.5713	0.9471	2.1180	1.4421	1.3007	1.1957	1.0000	1.9627	1.7619	1.4636
Income Bracket	1 <sup>st</sup> quintile	1.3604	3.0213	5.1312	1.9581	3.8324	2.0798	2.0795	2.4505	2.2556	3.3555	2.9758	2.5643
	2 <sup>nd</sup> quintile	0.7546	4.1477	2.5616	0.6555	2.0625	1.8303	1.5991	1.1941	0.7999	4.2379	1.6990	1.5112
	3 <sup>rd</sup> quintile	0.8685	2.6558	1.9785	0.4130	2.9244	2.6087	1.0775	0.2922	1.0058	3.3025	1.5414	1.2057
	4 <sup>th</sup> quintile	0.5612	1.6516	1.8095	0.8838	1.3018	1.5991	1.1337	0.7259	1.4888	2.3515	1.1040	0.9400
	5 <sup>th</sup> quintile	0.1784	0.0502	0.2345	0.4081	0.8518	0.4670	1.0734	0.2046	0.7295	1.2446	0.3656	0.9163

교육은 일부 소득분위 그룹에서 더 낮은 소득분위 그룹보다 소득탄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5분위 그룹의 경우, 교통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져 대부분 품목이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그룹의 경우, 모든 품목에서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가져 대부분 품목이 사치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은 소득1분위 그룹만 사치재인 반면 다른 소득분위 그룹에선 필수재이며,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보건, 음식·숙박은 소득5분위 그룹만 필수재인 반면 다른 소득분위 그룹에선 사치재이다. 교통, 교육은 예외적으로 모든 소득분위 그룹에서 1보다 큰 소득탄력성 값을 가져 사치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목 중 통신과 오락·문화는 특별한 추세 없이 통신의 경우 소득1분위, 소득2분위는 사치재인 반면 소득3~5분위에선 필수재였으며, 오락·문화는 소득2분위와 소득5분위만 필수재인 반면 나머지 소득분위 그룹에선 사치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1인가구의 소득탄력성이 소득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구매력있는 미혼 단독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함수를 토빗 모형을 이용해 추정했고, 추정시 교차항 설정을 통해 1인가구의 연령그룹별, 소득수준별 소득탄력성 차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1인가구는 비서비스와 서비스 품목별로 다른 소비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의 품목별 소득탄력성은 연령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또한 1인가구의 품목별 지출은 소득분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관련 정책 또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연령별, 소득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필수재 구매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또한 노령화와 1인가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료, 보건 서비스에 대한 중대 이외에도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서비스의 수요 증가가 특징적인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 산업 성장이 기대되며, 이들 1인가구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 증가와 이들의 소비구조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 기조를 1인가구에 특화된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가구에 필요한 복지 및 주택 정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분석 결과 1인가구의 보건 지출에 대한 소득과 연령별 차이가 다른 품목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보건 서비스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고소득 1인가구가 선호하는 의류, 오락·문화, 외식 소비 등의 지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1인가구 중에는 고소득 미혼자 그룹 등 구매력이 큰 소비자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06-2012.
- [2] M. L. Byun, S. Y. Shin, and K. J. Cho, "Single-person Household, Change Seoul", Policy Report 30, The Seoul Institute, 2009.
- [3] E. Klinenberg,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2012.
- [4] K. Labcater, "The Theory of Household Behavior: Some Foundation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41, 1975.
- [5] M. Wulff, E. Healy and M. Reynolds, "Why don't small households live in small dwellings?-Disentangle a planning dilemma", *People and Place* 12(1), p.57-70, 2004.
- [6] N. Hashimoto, "A Preliminary Note on Expenditure Patterns of One-Person Household in Japan", *Kansai University review of Economics*, 2006.
- [7] S.W. Park and H. J. Choi, "A Study on the Spending and Savings Behavior of Korean Single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4(2), p.33-52, 2008.
- [8] Young Sh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conomic Life of Single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p.197-208, 2002.
- [9] J. A. Kwon, Y. J. Lee, and H. K. Choi, "Housing Demand Forecasts and Activation Way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Report 2007-4, Korea Housing Institute,

2007.

- [10] Joo-hyun Cho and Ju-won Kim,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ousing Demand of Single-person Households - Focused on Seoul",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16(4), p.33-52, 2010.
- [11] S. K. Hwang,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on Service Consumption in Korea",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3(3), p.57-82, 2011.
- [12] J. H. Kim and H. J. Choi, "Study on the Consumption Expenditure Styles of Urban Households Based on the Income Elasticity Consumption Expenditure Styl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3(4) p.269-292. 2002.
- [13] B. S. Kim, D. H. Cho, and M. Y. Hwang, "A Study on Income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Seoul", SDI Report, The Seoul Institute, 2010.

**박 문 수(Moon-Soo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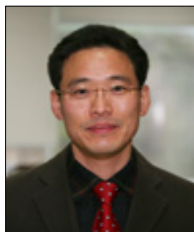


- 2008년 5월 : Texas A&M Univ. 농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08년 4월 ~ 2011년 6월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1년 7월 ~ 현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산업조직, 응용계량

**정 호 근(Hogun Chong)**

[정회원]



- 1996년 5월 : University of Arkansas 농경제학과 (석사)
- 2003년 5월 : Texas A&M Univ. 농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05년 1월 ~ 2007년 1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2007년 2월 ~ 현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농업경영, 응용계량

**김 화 년(Hwa-Nyeo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07년 5월 : Texas A&M Univ. 농경제학과 (농경제학박사)
- 2006년 12월 ~ 현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관심분야>  
자원환경경제, 식량위기

**고 대 영(Dae-Young Koh)**

[정회원]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 (공학박사)
- 2007년 8월 ~ 2008년 8월 : Postdoctoral Visiting Scholar New York Univ.
- 2009년 5월 ~ 현재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정보통신, 응용계량